

취임 1년, 이재준 시장 머릿속엔 경제뿐

기업 유치로 '안정적 세수' 확보 다짐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 최선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둔 이재준 수원시장 머리에는 온통 '경제', '수원'으로 꽂 차 보였다.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경제는 11년,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년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 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취임 후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인터그리스 등 3개 유망 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4~6호 기업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준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도약을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민선8기 1년 브리핑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의 앞으로의 시장 계획을 밝히고 있다. 수원시 제공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9

일 국회토론회에 참여해 수도권경비계획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사업 기간을 단축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최대 15년 이상 걸렸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5~10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단지에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리모델링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 더 많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도교통부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경기도, 국회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통합 예산 구체적 계획 제시하라”

협의회, 비용-예산 조달 등 계획 요구
추진비용 독립적 확보 방안 모색 주장

전국 시도교육감이 후보통합 추진 예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후보통합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해 추계 등을 밝히고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후보통합 시 교육과정, 시설 등의 통합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후보통합 추진 소요 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충당한 것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빚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다"며 "후보통합 추진 비용



전국시도교육감직장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직장협의회 제공

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비용은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 원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통합으로 교

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현재 보 건복지부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후보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현 기자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쓰쓰이가 바른기업**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정광진 조합장

“같이의 큰 힘 많은 분과 나누고 싶어”

축협, 주민 위한 무인 도서관 운영
지역민과 상생 끊임없이 노력 다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의 큰 힘'을 전파하고 싶어요” 올해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안성축협은 안성한우, 안성한돈, 안성육우 등의 브랜드와 지역 식당인 한우프리카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농협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정광진 조합장(제16대, 17대 안성축협 조합장)은 “취임 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해 오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대한적십자사의 쓰쓰이가 바른 기업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는 말처럼 기부와 봉사를 널리 알리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인터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축협은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불우이웃 성금” 기탁,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가정 고국 방문’ 지원, ‘직영 식당 복날 맞이 어르신 삼계탕 대접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책을 접하기 쉽지 않은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무인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다.

정 조합장은 “농협의 슬로건 중 ‘같이의 가치’라는 슬로건이 있다. '같이의 큰 힘'을 전파하고 싶다”며 “안성축협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철 기자

※ 적십자는 4중 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 및 내부감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가이드스타에서 재무안정성, 효율성, 책무성 및 투명성 부문에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이다. 적십자의 ‘쓰쓰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정기적인 나눔 실천으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이웃에게 희망을 더하고, 나눔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기업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참여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031-230-1667)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들 편리하게 똑버스 이용토록 앱 설명 부탁”

이재준, 개통식서 단체장들께 당부
오는 7일부터 10대 차량 정식 운행

“어르신들이 똑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이용 방법을 잘 설명해 달라”

1일 광교역사공원에서 열린 ‘똑버스 개통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똑버스는 앱으로 호출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앱을 다루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단체장님, 경로회장님 등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앱 사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똑버스는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

로 오는 택시 같은 버스”라며 “광교12동에서 똑버스가 활성화되면 하반기에는 서수원권 당수지구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 운행 시간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브랜드다. 11인승 승합차이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6월 7일부터 10대 차량으로 정식 운행한다.

김영철 기자

나눔의 가치를 더하다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경기 사랑의열매에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기부상당 : 031-220-7900

2022년 모금금액

799억

2022년 지원금액

784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우리지역이웃

사랑의열매

기부

우리지역 복지기관·시설

25 years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